

모든 것을 앗아가는 한 순간의 재난은 생명마저도 구하기 어려울 지경에까지 이르게 합니다. 우리가 오랜 시간동안 애써 일으킨 집과 재산은 눈 깜짝할 사이에 파괴되거나 사라져 버립니다.

다음 재앙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?

나는 급류처럼 우리 삶을 허물어뜨리는 고난 속에 작은 기도 하나가 가장 큰 효력이 있음을 경험했습니다:

하나님, 나의 아버지! 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합니다.



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흐릅니다.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의 뜻을 하나님의 발아래 두었기 때문입니다.

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를 낮출 수 있을까요? 우리가 그분의 사랑,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꼭 붙들 때입니다.

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는 가장 큰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.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. 징계하심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주께로 이끄시며 특히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도 시편 기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.

*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
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
영원한 분깃이시라 (시 73:26)*

이럴 때 고통은 그 힘을 잃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사탄은 반드시 굴복하게 됩니다.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절대 잃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.

우리가 마음에 간직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. 주님만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환난 중에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고난 가운데에도 예전에 보지 못한 그분의 도움과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

바실레아 슐링크 (M.Basilea Schlink)